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선정우수전문건설업체

이 봉 수 서용건설(주) 대표이사

"작은 아이디어가 공사 수익률 1 2% 높일 수 있어"

"서울시종합건설업단체에서 우리 회사를우수업체로선정해상을준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해하였지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준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골조, 즉철근콘크리트공사전문업체인 서용건설의 이봉수 사장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로부터 우수 전문건설업체로 뽑혀 지난달 중순 표창장을 받았다.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추천이 힘이 되었다. 서용건설은 1990년대 초반 현대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이후 매년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고 있다. 올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금호건설등3개대형건설업체의우수협력업체로이름을올렸다.

서용건설은 1991년 설립되어 아직 창립 20년도 되지 않은 회사다. 이봉수 사장도 50이 채 되지 않은 젊은 건설 경영인이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세는 놀랍도록 가파르다. 서용건설은 국내에서가장층수가많은 건물의골조공사를수행한데이어가장높은건물의골조공사도진행하고있다. 현대건설의 목동 하이페리온 I(69층)과 대우건설이인천송도에짓고있는송도아시아트레이드타워(ATT, 68층)의 골조 공사가 그것. 목동하이페리온 I 이송도ATT보다층수는1개많지만높이는송도 ATT가 305m로 목동 하이페리온 I 보다 9m 높다. 서용건설은이외에도목동하이페리온 II(41층), 용산시티파크, 광진구건대스타시티, 잠실더샵, 여의도리첸시아주상복합건물등국내의이름난초고층건물의골조공사를다수 수행하였다. 국내초고층 건물의 층수와 높이에 관한 기록들이 이 업체의 골조 공사를거쳐경신되는셈이다.

이처럼 서용건설은 국내 초고층 건물의 골조공사를연이어수주하며철근콘크리트 공종에서 10위 안에 드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비결은무엇일까? 이봉수사장은 골프장에 가지 않는다. 아예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1주일 중 본사에 있는 이틀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보낸다. '건설은 결국 사람 이라는 신념을 갖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공사를 쉽고 빨리 하면서도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부단히 찾는다." 현장위주의경영이이루어져야완벽한 공사 품질이 가능하지요. 현장 직원들도 저의 진정성을 믿는지 주인의식을 갖고 밤낮없이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불황에도 아랑곳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있었습니다."

이봉수 사장은 아이디어가 많다. 본사 사무실에있는동안에도한쪽에현장에서 쓰이는자재와장비들을쌓아놓고틈틈이 직원들과 함께 시공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활아이디어 다." 우리회사처럼중소업체가기술연구소를갖추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가급적자재나장비를직접개량하여 써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요즘처럼공사수익이낮은상태에서는작은아이디어가수익률1 2%를보전하기도합니다."

서용건설의효자 기술' 테이블폼 은 이러한환경에서만들어졌다. 이공법은거푸집 탈형시 소형 지게차 등을 이용해 최소한의 인양구를 통해 해체와 동시에 설치가 이루어지는방법으로공사비및공정을단축할 수 있는 신공법이다. 실제로 한 개 층 골조 공사를 끝내려면 최소 5 6일 정도의 시간이소요되지만이기술을이용하면4일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2005년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제452호로 지정 받았다." 신기술을 개발한 이후 초고층 빌딩 건설에 참여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지금은 신고리 원전 1 4호기 골조 공사를 수행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및향상에더욱힘써국내는물론해외공사에서도일을맡긴고객의믿음에보답하겠습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